

# 광주 축구 '겹경사'...광주대·금호고 동반 우승

광주대 춘계연맹전 우승  
지난해 이어 대회 2연패  
금호고 압도적 경기력으로  
5년만에 백운기 정상 우뚝



광주대 축구부가 27일 열린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을 차지한 뒤 자축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 금호고가 27일 백운기 전국고교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 축구가 대학·고교 축구 대회에서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 금호고는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정상을 차지했다.  
이승원 감독이 이끄는 광주대는 27일 경남 통영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중원대와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했다.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2연속이자 통산 세 번째 정상을 밟았다.  
광주대는 동의대와 4강전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둔 뒤 결승에서도 승부차기로 정상을 밟았다.  
광주대는 전반 40분 백운기의 득점으로 1-0 리드를 잡았다. 이후 후반 7분 추격골을 허용했으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전병훈의 맹활약으로 마지막에 웃었다.  
박지우는 최우수선수상, 박수완은 수비상, 전병

훈은 골키퍼상을 받았다. 이승원 감독은 최우수지도자상, 광주대는 페어플레이상도 함께 받았다.  
광주FC U18 금호고는 5년 만에 백운기 우승컵을 탈환했다.  
금호고는 이날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제23회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경기포전 시민축구단 U18을 4-0으로 제압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백운기 정상에 올랐다. 대회 4번째 우승이기도 하다.

금호고는 지난 15일 시작된 이번 대회에서 7연승을 달리면서 우승까지 내달렸다.  
특히 결승전 4득점 포함 20득점을 폭발시킨 금호고는 단 1실점의 철벽 방어를 과시하면서 공수에서 우승팀의 면모를 과시했다.  
금호고는 안산그리너스 U18과의 첫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둔 뒤 FC안양 U18 안양공고를 5-0으로 제압했다. 이어 파주축구센터 U18(3-0), 경북 영덕고(3-1), 서울한양공고(3-0)를 차례로 꺾

면서 결승에 올랐다.  
금호고는 결승전에서 전반 13분에 나온 공격수 나상우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김민석의 멀티골, 조현동의 추가골을 더해 4-0 대승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최수용 감독은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가 이번 대회 우승의 밑거름이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2022년 첫 대회를 우승으로 출발하게 됐다.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고는 개인상도 싹쓸이했다.  
곽민석이 최우수선수에 등극했고, 안현주와 강동현이 각각 최우수공격수와 최우수수비상을 받았다. 강찬술은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  
또 우승을 지원한 최수용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받았고, 박요한 코치가 최우수코치가 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강다현, 전남 동계체전 사상 첫 4관왕

<여수 죽림초>

스키 알파인 4개 전 종목서 '싹쓸이 금'...조다운·랍신은 3관왕

스키 알파인의 '셋별' 강다현(여수 죽림초 6년)이 전남 동계체전 스키 종목의 새역사를 썼다.  
강다현은 지난 25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알파인 여자 13세 이하부 회전경기에서 34.99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첫날 슈퍼대회전(28.08초)과 둘째날 대회전(56.17초)에서 2관왕을 달성한 강다현은 이날 주종목인 회전에서도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 3관왕을 달성했다.  
강다현은 메달 종목을 합산한 복합기록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4관왕에 올랐다.  
강다현은 전남체육의 역대 동계체전 사상 첫 4관왕에 올랐고, 세부종목 3관왕을 달성한 선수로 전남체육 역사를 새로 썼다.  
강다현은 어린 나이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 주고 있다.  
성장기 질환인 오스구스씨병 때문에 무릎 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동계종목 불모지 전남은 이번 체전에서 다관왕을 배출해 주목받고 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조다운(화순초 6년), 바이애슬론 티모페이 랍신이 각각 3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서 4학년으로 출전해 선배들을 제치고 3관왕을 차지했던 조다운은 이번대회에도 3관왕을 달성했다.  
조다운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13세 이하부 클래식 3km(13:13.2), 프리 4km(15:17.2), 6km 계주(26:10.4)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고 관바로 대회에 출전한 티모페이 랍신(전남체육회)도 남일부 스프린트 10km(25:29.2), 집단출발 15km(42:07.6), 22.5km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 3관왕에 올랐다. 바이애슬론 여일부의 에카테리나 압바쿠모바(석정마크씨팀)도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에카테리나는 여일부 스프린트 7.5km(21:58.8), 집단출발 12.5km(44:14.5)에서 금메달을, 18km 계주에서는 아쉬운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이들의 선전으로 금 13, 은 6, 동 5개를 획득하며 당초 목표 메달인 금 6, 은 3, 동 3개를 초과 달성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강다현

# AI페퍼스 여자배구 '부상에 올라'

이현·지민경 등 부상 악재 속 분전했지만 도로공사에 0-3 패

부상병 속출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5라운드를 패배로 마쳤다.  
AI페퍼스는 27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맞붙어 패배했다. 세트스코어 0-3(12-25, 20-25, 23-25). AI페퍼스는 현재 3승 27패로 승점 11점을 기록 중이다.  
AI페퍼스는 주전인 대거 결장해 고전했다. 박은서는 왼쪽 발목 뺏조각 제거 수술로, 지민경이 오는 3월 4일로 예정된 왼쪽 무릎 수술로 코트를 잠시 떠났다. 이현은 지난 GS칼텍스전에 이어 허리 통증으로, 박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경기에 불참했다.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이현비와 박경현에게는 상당한 피로가 누적됐다.  
AI페퍼스는 1세트부터 구슬을 주전 세터로 올렸다. 하지만 초반부터 한 박자 느린 수비, 불안한 리시브·디그에 발목을 잡혀 3-8로 끌려갔다.  
엘리자벳이 줄처럼 득점을 못 내는 가운데 이현비·박경현의 측면 강타로 연명했지만, 제 흐름을

찾지 못한 탓에 금세 10-20으로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1세트를 허무하게 내줬다.  
2세트에서도 엘리자벳의 공격은 켈시·정대영의 블로킹에 연거푸 막히고, 문슬기의 디그는 수차례 손 끝만 스치면서 아쉬운 실점이 쏟아졌다.  
박경현·이현비의 분투로 13-13까지 균형을 맞췄지만, 수비 빈틈을 노리는 켈시·박경아의 강타에 순간에 3점을 잃고 승기를 내줬다. 이 점수차는 20-25로 세트를 내줄 때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3세트에서는 이현비 대신 김세인이 코트에 올랐다. 김세인은 서브에이스·시간차 득점에 이어 네트에 맞고 황겨나운 볼을 발로 퍼올리는 등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랠리 끝에 타진 하혜진의 블로킹 3득점이 더해져 15-17까지 추격했다. 기세를 몰아 23-24로 '두스' 코앞까지 쫓아갔지만, 김세인의 강타가 박경아 블로킹에 막히면서 어렵게 3세트를 마무리했다.  
이날 박경현·이현비가 각각 15득점(공격성공률 33.33%)·10득점(33.33%)을, 김세인은 5득점(57.14%)을 올렸다. 엘리자벳은 5득점(13.33%)으로 부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신진서 4연승...한국, 농심배 바둑 역전 우승

신진서(22·사진) 9단이 농심배에서 파죽의 9연승을 달리며 한국의 대회 2연패를 완성했다.  
신진서는 지난 26일 한국기원과 일본기원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 제23회 농심신라배 세계 바둑최강전 최종국에서 일본의 이치리키 료(25) 9단을 꺾고 한국의 우승을 확정했다.  
농심배는 한국·중국·일본 3국에서 5명씩의 프로 기사가 출전,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국을 가리는

국가대항전이다.  
지난 대회에서 끝내기 5연승으로 한국의 우승을 결정지었던 신진서는 올해 대회에서도 파죽의 4연승으로 중국과 일본 기사들을 연파했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신진서는 미유타잉 9단(중국), 위정지 8단(일본), 커제 9단(중국)을 연달아 제압한 뒤 일본 마지막 주자 이치리키까지 잡아내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1점에 올라'

코로나 악재 털고 선전했지만 골운 안 따라 SK에 31-32 분패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코로나 악재에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선보였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3라운드 SK 슈가글라이더즈와 경기에서 31-32(12-13, 19-19)로 패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리그 전적 8승 8패를 기록, 4위에 머물렀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날 경기에서 코로나 후유증이 무색할만큼 탄탄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강경민(12골, 6어시스트), 원선필(7골), 송혜

수(4골), 방민서(3골) 등 주전들의 솜씨가 여전했다.  
하지만, 골운이 따르지 않았다.  
경기 종료 11초를 남긴 상황에서 송혜수의 9m 슛이 골키퍼 이민지에게 막히면서 1점차 패배를 당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웃고 올랐다. 선수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경기를 치르지 못해 최근 2경기 몰수패를 당했으나 지난 24일에는 몰수승을 거뒀다. 인천시청의 집단감염 때문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극장판 주술회전 0
- 3관 해석: 도깨비 깃발
- 4관 언차티드
- 5관 언차티드
- 6관 안테벨름
- 9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7관 새네케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나일 강의 죽음, 광대: 소리꾼
- 8관 새네케를 안테벨름, 시라노, 킹메이커, 나이트메어 앨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회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회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